호국성지서 선열의 얼 느낀다

정읍 내장사, 호국성지 탐방 등 인기 높아

정읍 내장사(주지 도완)가 실시하는 다도체험과 호국성지 탐방 프로그램이 지역민과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내장사는 문화재청이 주관한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운영하고 있는 '천년 선사들 숨결 따라 이어온 다도체험과 호국성지 탐방'을 지난 4월 시작해 오는 10월까지 실시한다.


내장사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다도체험을 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다도체험과 전통자연발효차 만들기, 호국성지 탐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정읍지역에서 생산된 자생차를 활용한 발효차 만들기는 3개월간 진행됐으며, 500여 명이 신청해 전통제다법을 익혔다. 특히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발효차는 내장사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매주 토요일 내장사 주지 도완 스님이 직접 차 명상프로그램을 지도한다. 1개월 단위로 운영되며, 산사의 전통 다도체험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해 기획됐다. 이외에 호국성지 탐방도 10월까지 계속된다. 지역의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호국성지 탐방은 각급 학교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조선왕조실록보존터인 용굴 등 성지를 탐방하면서 호국선열들의 얼을 기리고 호국 문화재 의미를 되새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연꽃 둘러싸인 오감만족 문화축제

우리문화연구원, 전주 덕진공원서 연꽃문화제

기습적인 폭우에 이어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전북지역에서 무더위를 날리는 연꽃문화제가 개최됐다.

(사)우리문화연구원(이사장 성우)은 7월 15~16일 전주 덕진공원에서 '전주연꽃문화제'를 개최했다.〈사진〉 연화장 세계처럼 펼쳐진 연꽃 향연 속에 펼쳐진 문화제는 다채로운 공연과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틀간 펼쳐진 연꽃문화제에는 약 3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연꽃 노래자랑과 시니어밴드의 공연, 난타공연, 성악 등이 연달아 펼쳐졌고, 투호와 굴렁쇠 굴리기, 불교 OX 퀴즈대회도 각광을 받았다. 체험부스에서는 사경, 풍선아트, 염주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등이 진행됐다. 또 전북지역 사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교합창단이 총 출연하는 연합합창제도 거행됐다.

성우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연꽃은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진흙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불교의 상징"이라며 "시민 모두 어려움 속에서도 연꽃과 같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문빈정사, 대웅전 기와불사 회향

광주 문빈정사(주지 법선)는 7월 19일 기존 허름한 건물에 대한 보수와 함께 대웅전 기와를 새로 조성한 불사 회향식을 봉행했다. 회향식에는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김성환 동구청장, 이범식 광주불교연합신도회장 등 300여 명의 대중이 참석했다.

회향을 맞은 주지 법선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30여 년 만에 대웅전을 대대적으로 손보고 이 자리에 오니 행복감과 안도감을 느낀다. 기와가 떨어지고 비가 새는 대웅전, 붕괴직전까지 간 종루와 종무소였지만 무사히 공사를 마치게 돼 부처님과 대중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은 법문에서 "중생이 불성을 갖고 있기에 중생이 하는 일은 다 불사라고 할 수 있다. 조금 일이 늦어지고 잘 안 되더라도 마음을 편안하고 여유롭게 하면 모든 것이 성취될 수 있다"고 격려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진실한 마음 담아 가사공양을…

화엄사, 4개월 동안 신도들과 가사 조성

스님들에게 공양 올릴 가사(袈裟)를 화엄사 신도들이 한 땀 한 땀 바느질로 조성하고 있어 화제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7월 19일부터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에 재적 중인 300여 스님에게 공양할 가사를 조성하고 있다. 오는 11월 19일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되는 불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전통가사의 복원과 신도들이 직접 가사조성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화엄사성보박물관은 박춘화 한복명장의 지도아래 매주 수요일 범음료에서 '부처님의 옷을 짓다'라는 주제로 바느질 교실을 열고, 손바느질로 가사를 직접 지어보는 강좌를 이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춘화 명장은 "신도들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든 가사를 인연 있는 스님들이 수하고, 정법을 널리 펴시길 기원한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강좌 최연소 참가자 박유림 양(15)은 "평소 바느질을 좋아해서 엄마와 함께 참여하게 됐다. 몸은 조금 힘들지만 공기 좋고 계곡물 맑은 곳에서 신심을 북돋는 일을 해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말했다.


화엄사 스님들에게 공양 올릴 가사를 직접 조성하기 위해 강좌를 수강하는 신도들 모습에서 깊은 신심이 묻어난다.

강좌는 지난달 21일 시작해 11월 15일까지 진행되며, 11월 19일 스님들에게 가사를 올리는 의식인 '화엄사 공승재' 행사를 통해 스님들에게 공양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가사불사에는 조선시대 맥을 이어온 금란가사도 전문가들에 의해 복원 조성될 예정이어서 의미가 깊다.

가사불사 조성이 시작된 19일에는 국내 최고의 의상복식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시아민족조형학회 회원들이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비롯한 3사 7증사 스님들에게 올릴 가사 조성에 나섰다. 아시아민족조형학회는 지난 2015년부터 전통가사에 대한 특강과 실기를 통해 조선중기 이후 가사를 복원한 작품을 화엄사 박물관에 기증하기도 했다.

화엄사성보박물관장 대진 스님은 "이번 가사불사는 화엄사의 모든 스님들에게 예경의 마음을 담아 올리는 것이다. 특히 종정예하와 3사 7증사 스님의 금란가사는 아시아민족조형학회의 최고의 명장들이 옛 복식에 맞게 심혈을 기울여 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민족조형학회 회원들은 9조, 25조, 그리고 첨상가사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이번 가사불사 중 금란가사를 복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화엄사성보박물관은 가사불사를 기념해 화엄사에서 보관 중인 서산대사, 각성대사의 가사와 더불어 아시아민족조형학회에서 기증한 가사를 중심으로 가사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한편 4개월간 조성된 가사는 11월 19일 화엄사 화엄료에서 개최되는 공승재에서 300여 스님들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외국인불자들의 거리 청소 '훈훈'

완주 둔산공원 일대서 50여 근로자들 동참해

전북 완주 국가산업단지에 근무하는 불교국가 출신 근로자들이 거리 청소에 나서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완주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좋은이웃(대표 정용기)은 7월 16일 완주군 봉동읍 둔산공원 일대서 공원 및 거리 청소봉사에 나섰다. 이날 봉사에는 불교국가인 네팔, 스리랑카,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출신 근로자 50여 명이 동참해 쓰레기를 주우며 거리를 청소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의 휴식공간인 둔산공원과 근로복지공단 주차장 일대 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캔 등을 깨끗이 수거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시간 여에 걸친 청소를 마친 근로자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봉동읍 일대 시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공원 등을 찾아 청소봉사활동을 하기로 결정했다.


완주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불교국가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리를 청소하고 있다.

정용기 대표는 "매년 지역주민들과 사회단체들의 후원으로 외국인 근로자 잔치 한마당과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도움을 받고 있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도 선뜻 동의해 매월 정기적으로 거리 청소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둔산공원 정자에서 휴식을 취하던 김성원 씨(67)는 "더위를 식히려 둔산공원에 매일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이 청소를 하는 모습은 처음 봤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힘든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일도 반납하고 거리청소에 나서는 모습이 대견하다"고 칭찬했다.

거리 청소에 동참한 리쁙반타 씨(30)는 "많은 한국인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데 우리도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쁘다"며 "크게 힘든 일이 아닌데도 주민들이 격려해주니 기분이 좋다"고 말하며 활짝 웃어보였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김제 금산사 생전예수재 회향

김제 금산사(주지 성우)는 7월 17일 금산사 대적광전에서 정유년 생전예수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지난달 18일 입재해 한 달간 봉행된 생전예수재는 성우 스님을 비롯한 금산사 대중스님들과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불자 300여 명이 동참해 삼업을 참회하고 내생에 성불할 것을 다짐하는 의식으로 진행됐다.

성우 스님은 입재법문을 통해 "생전예수재는 진실한 마음으로 생전의 삼업을 참회하고 내생에 무량공덕 인연으로 성불할 것을 다짐하는 엄숙한 불교전통"이라며 "성불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참회와 정진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백련사 창건법회 봉행

광주 남구에 자리 잡은 백련사가 창건법회를 열고, 지역포교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남구 행암동에 위치한 백련사(주지 도요)는 7월 15일 창건법회를 봉행, 지역 불자들을 위한 기도와 법회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이다.〈사진〉

순천 송광사 말사로 등록된 백련사는 행암동 일대 100여 평 대지에 대웅전과 요사채를 갖추고, 인근 새로 개발되는 효천지구 아파트 단지 포교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백련사는 기존 원효종의 노스님이 운영하던 사찰을 인수해 새로 조계종 사찰로 개원했다.

개원식에는 송광사 승가대학장 연각 스님을 비롯해 100여 대중이 동참했다. 주지 도요 스님은 "아직 사찰 정비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신도들과 더욱 정진해 지역포교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는 사찰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천년의 혼(魂)을
담은 서각(書刻)불사

소납은 경북 성주 청매암에서 수행 정진하는 정도(正道)스님 입니다.

17년전 해인사 원당암에 주석하셨던 혜암 큰스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천년을 보존하는 목재를 섭씨 60도에서 2년간 염장처리하고 8년간 자연 건조한 목재 200여장을 준비하여 시절 인연을 기다립니다.

반야심경(般若心經)108분의 서체가 필요합니다. 서체와 성별, 국적, 종교도 무관합니다.
감동과 원력이 담긴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원본은 돌려드리고, 영인본으로 서각하여
108편이 완성되면 박물관 또는 수장고에 기증하여 천년을 보존 하겠습니다.



뜻이 있으신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연 락 처
주 소 :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화4길 36-35 (청매암)
전 화 : 054-932-6917
휴대폰 : 010-3523-1977
청매암 주지 정도 합장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